

임부의 태교관련 지각, 태교관행 및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

한 경 사** · 김 정 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따뜻하고 원활한 부모-자녀관계는 영아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융통성과 능력이 있는 사회적 인간존재로 발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초기에 형성된 긍정적인 모-아 관계는 숨겨진 조정요인(Hidden Regulator)으로서 전 일생의 신체, 정서적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효과를 갖게 한다(Shore, 1997). 태교는 이러한 초기 모아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임부가 태아를 한 인격체로 간주하여 태아와 교류하는 모-태아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태교는 태아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일컫는 말로 새로운 생명을 임신한 임부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성의를 다하여 태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중국에서부터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태중교육으로 정착되었다(유안진, 1990). 태교는 그 목적에서 볼 때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상적으로는

태교의 주체인 임부가 태아에 대하여 심신의 건강 유지 및 환경적 관리를 위한 최상의 노력으로 태교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철학적 견지(이동민, 1984)에서 본다면 자명한 모-태아 상호작용이다. 태교는 임신 중 태아와 임부를 위한 총체적 노력으로서 임부의 생리, 심리, 환경적 요소가 태아와 상호 작용된다는 통합된 개념에 근거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본 태아의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 1996).

우리의 전통적인 태교 관행에는 태몽과 태아신념, 태교에 대한 인식 등이 관련되어 태교실천에 영향을 미치는데 태몽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암시, 태아의 건강상태, 성장과정의 변화여부와 자녀의 미래 성공여부를 예시한다고 해석되어진다(구본권, 1999), 임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성별과 외모에 환상을 지니는 과정은 임부와 태아의 애착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Davis & Alkridge, 1987). 또한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형태를 확인한 임부가 초음파 검진을 하지 않은 임부보다 태아에

* 본 연구는 2003년 과학재단 우수여성과학자 도약지원연구(KOSEF-R04-2003-000-10028-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경북대학 간호과

교신처자 한경자 : hankj@snu.ac.kr

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김현옥, 1991)는 태몽을 통해 태아에 대한 기대나 태아에 대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태교실천과 모-태아에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암시한다. 태교인식이 높은 경우의 임부들에게서 태교실천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이기영, 1992).

이와 같이 태교에 관련된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통합적인 지식이나 모-태아상호작용 신념에 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욱이 임신 중의 모-태아 건강과 출산 후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임부의 조기모성역할 개발에 초점을 둔 국내의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미래 국가경쟁력으로서 건강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조기모성역할 개발은 아동인구의 감소와 저 출산의 현 국내 현실에서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태교관점의 모-태아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태교에 관한 임부의 지각이나 태교관행에 관련된 기초자료와 모-태아상호작용에 대한 임부의 신념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선대의 가치나 신념 등이 계승되어 특징지어진 행동방식의 위동력으로서 신념은 각 개인의 사고나 의사결정 그리고 기본요구가 충족되어지는 특정행동양식을 결정하기 때문에(Leininger, 1991) 출산 전부터 모성의 부모역할 기르기와 건강한 영아출산, 그리고 영아의 출생 후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임부의 모-태아 상호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선 태교와 관련된 전통적 신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부의 임신, 태몽,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 그리고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태교관점의 모-태아 상호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아 건강분야의 지식개발과 간호실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 그리고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임부의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지각에 대하여 파악한다.
- 2) 임부의 태교관행이 어떠한지 파악한다.
- 3) 임부의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4) 임부의 특성에 따라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구성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관행, 그리고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절차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산부인과 전문병원 2곳과 보건소 1곳에 산전관리를 받기 위해 내원한 임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190명을 임의 표집하여 대상자의 기초자료 응답기록지와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

과 태교관행에 대한 주관식 질문을 포함한 설문지 그리고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신념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면담과 동시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 내용이 부족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86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하여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문항수의 4.5배가 바람직하며 총 26개의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신념 문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표본수 104 이상이 이상적이라고(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보아,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도구

1)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에 대하여 서술식 질문을 포함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2)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 측정 도구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하여 26문항으로 된 7점 척도의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위해 아동간호학 교수 2인과 아동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도구는 임신에 관한 5문항, 태교실천에 관한 3문항, 영아에 관한 3문항, 태아에 관한 3문항, 태몽에 관한 3문항과, 모-태아상호작용행동에 관한 4문항의 총 6개 요인,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개발된 도구의 내적 일관성 검사는 개발 초기에 Chronbach's α .77이었으나 요인분석 후 문항 상관계수가 낮은 5개 문

항을 제외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21문항의 Chronbach's α 는 .82이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으로 컴퓨터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관련변수간의 검증은 t-test 및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태몽과 태교에 관한 주관식 문항은 내용분석 후 주제별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구성요인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임부의 특성

연구대상자 186명에 대한 특성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임부의 연령은 모두 30세-39세의 연령분포 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많았다. 남편이 직업을 가진 경우는 91.9%이었으나 임부 자신이 직업을 가진 경우는 21.0%였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가 58.1%였고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5.5%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임신주수는 28주 이상이 79%였고 첫 임신까지의 결혼기간은 1년 미만이 60.8%였으며 임신 중 질병은 대부분이 없었다(98.4%).

2.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

1) 임신에 대한 지각

임신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분석한

결과를 <표 1>과 같다. 임부의 대부분(84.9%)이 원하던 임신으로 임신의 의도가 있었음을 밝혔고 처음 임신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뭉 듯이 기뻐했다(34.8%). 행복했다(11.8%)는 긍정적인 반응이 총 46.6%인데 비해 별 느낌이 없었다(37.6%)나 당황스러웠다(13.6%)는 부정적인 경향의 반응이 총 51.2%였다.

<표 1> 임신에 대한 지각 (N=186)

항목	답변	N(%)
임신의도	예	158(84.9)
	아니오	28(15.1)
임신소식에 대한 첫 느낌 (복수응답, N=287)	뭉 듯이 기뻐했다	100(34.8)
	별 느낌이 없었다	108(37.6)
	걱정스러웠다	6(2.1)
	행복했다	34(11.8)
	당황스러웠다	39(13.7)

2) 태몽에 대한 지각

태몽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임부의 대다수(82.8%)가 태몽을 꾸었다고 답하였으며 태몽의 종류로는 과일, 열매, 꽃 등의 식물이나 용, 물고기 등의 동물인 경우가 많았다(70.8%). 임부가 믿고 있는 태몽의 예시 내용으로 아들이나 딸이라는 태아의 성별 예시기능이 52.2%로 과반수를 넘었고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시 기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18.3%나 되었다. 과거 임부자신에 대한 태몽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4.8%로 과반수를 넘었으나 임부자신에 대한 태몽의 예시가 임부의 현재까지와 미래에 얼마나 맞는다고 믿는 지에 대해서는 28.5%의 임부가 “매우” 혹은 “약간 맞다”고 생각하는 반면 “거의” 혹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5.5%였으며 과반수이상(56.0%)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3) 태아에 대한 지각

<표 2> 태몽에 대한 지각 (N=186)

항목	답변	N(%)
태몽유무	유	154(82.8)
	무	32(17.2)
태몽 종류 (복수응답, N=192)	과일, 열매, 꽃 등 식물	59(30.7)
	용, 물고기 등 동물	77(40.1)
	보석, 금속	26(13.5)
	신선, 선녀, 사람	6(3.2)
	사물(책, 돈, 상자 등)	1(0.5)
	조개, 돌, 바위	6(3.2)
	별, 달, 해	2(1.0)
	기타	15(7.8)
	아들일 것이다	58(31.2)
	딸일 것이다	39(21.0)
태몽이 예시하는 내용	귀인(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34(18.3)
	부자가 될 것이다	8(4.3)
	정계에서 출세할 것이다	1(0.5)
	학자가 될 것이다	1(0.5)
	일반적인 꿈일 뿐이다	19(10.2)
	예시기능은 없다	11(5.9)
	기타	15(8.1)
	과거 임부자신 에 대한 태몽	유
무	84(45.2)	
임부자신의 태몽이 예시하는 정도	매우 맞다	3(1.6)
	약간 맞다	50(26.9)
	거의 안 맞다	22(11.7)
	전혀 안 맞다	7(3.8)
	잘 모르겠다	104(56.0)

대상자 모두 초음파 검진상의 태아를 확인했으며 확인 시 기분에 대한 서술적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신기함, 행복, 감동 등의 긍정적인 느낌을 나타낸 경우가 89.9%인 반면, 황당함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도 소수 있었다(1.5%). 그 외 책임감을 느껴거나(2.3%), 여성임을 실감하거나(1.1%), 태아에 대하여 예쁘다거나 생각보다 덜 예쁘다고 평가적 인지를 표현한 경우(2.4%)도 있었다. 임부의 태아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태어날 아기의 예측되는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 50.0%의 임부가 아기는 적응을 잘할 것이라고 하였고, 까다롭고 예민한 것이라고 예측한 경우도 9.8% 있었다. 임부들이 이렇게 아기의 성격을 예측한 이유는 62.4%가 부모의 성격을 답아서라고

〈표 3〉 태아에 대한 지각

초음파를 통한 태아 확인		확인함		186(100)	
초음파를 통한 태아 확인 시 기분 (복수응답, N=259)	느낌	신기함, 신비로움	117(45.2)	신기함, 신비로움	117(45.2)
		경이로움, 놀라움	10(3.7)	경이로움, 놀라움	10(3.7)
		행복, 즐거움, 좋음	31(12.0)	행복, 즐거움, 좋음	31(12.0)
		기쁨	24(9.3)	기쁨	24(9.3)
		감동, 감격	30(11.6)	감동, 감격	30(11.6)
		충만감, 만족감	5(1.9)	충만감, 만족감	5(1.9)
		설렘, 흥분	7(2.8)	설렘, 흥분	7(2.8)
		감사(상대성)	6(2.3)	감사(상대성)	6(2.3)
		생명의 고귀함, 소중함	3(1.2)	생명의 고귀함, 소중함	3(1.2)
		기대보다 덜 신기함	1(0.4)	기대보다 덜 신기함	1(0.4)
		황당함	2(0.7)	황당함	2(0.7)
		별 느낌 없음	1(0.4)	별 느낌 없음	1(0.4)
		지켜주고 싶음	1(0.4)	지켜주고 싶음	1(0.4)
		조심스러움, 걱정, 안심	4(1.5)	조심스러움, 걱정, 안심	4(1.5)
		의무감, 책임감	1(0.4)	의무감, 책임감	1(0.4)
책임감					
여성		임신 실감	2(0.7)		
정체성자각		여성임을 실감	1(0.4)		
소망		잘 자리주길 바램	1(0.4)		
기다림		얼굴 볼 날 기다려짐	3(1.2)		
평가적 인지		긍정 사랑스러움, 예쁨	7(2.8)		
		부정 생각보다 덜 예쁨	2(0.7)		
태어날 아기의 성격에 대한 예측 (복수응답, N=214)	아기는 적응을 잘 할 것이다	107(50.0)	아기는 적응을 잘 할 것이다	107(50.0)	
	자극에 빨리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40(18.7)	자극에 빨리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40(18.7)	
	쉽게 달래 질수 있을 것이다	12(5.6)	쉽게 달래 질수 있을 것이다	12(5.6)	
	자극에 천천히 반응하며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8(3.7)	자극에 천천히 반응하며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8(3.7)	
	사람에게 잘 안기고 밀착되는 기질인 것이다	26(12.2)	사람에게 잘 안기고 밀착되는 기질인 것이다	26(12.2)	
	까다롭고 예민할 것이다	21(9.8)	까다롭고 예민할 것이다	21(9.8)	
아기에 대한 성격예측 이유 (복수응답, N=194)	아기의 태동을 보고	54(27.8)	아기의 태동을 보고	54(27.8)	
	태몽에 근거하여	5(2.6)	태몽에 근거하여	5(2.6)	
	엄마,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121(62.4)	엄마, 아빠의 성격을 닮아서	121(62.4)	
	기타	14(7.2)	기타	14(7.2)	

생각했고 아기의 태동을 보고 예측한 경우도 27.8%있었다. 그러나 태몽에 근거하여 아기 성격을 예측한 경우는 2.6%였다<표 3>.

3. 태교관행

태교관행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임부가 특별히 태아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서술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악활동 중 음악감상이 19.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아기 쓰다듬기(14.2%), 독서(11.3%), 태담(8.8%)이 태교관행의 종류로 나타났다. 태아를 위하여 시행한다고 하는 영어회화나 한자공부와 같은 학습활동도 1.8%로 나타났다.

임부들이 태아를 위하여 현재 특별히 해 주고 싶다고 응답한 태교의 종류로는 책읽어주기(16.8%) 음악듣기(16.3%), 이야기하기(15.5%), 아기 쓰다듬기(14.2%), 아기모습 상상하기(1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태교관행

항목	답변	N(%)	
현재 시행중인 태교 (복수응답; N=388)	운동	일상적인 운동 24(6.2) 요가, 기체조 13(3.4) 음식태교 10(2.6)	
	영양	영양제 섭취 1(0.3) 식이조절 1(0.3)	
	휴식	휴식, 잠 많이 자기 2(0.5)	
	심리적 안정	마음을 안정화하는 노력 5(1.3) 명상 4(1.0)	
	긍정적사고	좋은생각 10(2.6) 음악감상 76(19.6)	
	음악활동	동요듣고 부르기 10(2.6) 악기연주 6(1.5) 모차르트 음악듣기 1(0.3)	
	책읽기, 읽어주기	독서 44(11.3) 동화책 읽어주기 17(4.4)	
	태담	태담 34(8.8)	
	학습활동	영어회화, 한자공부 7(1.8)	
	시각적 자극	전시회 관람 4(1.0) 여행 1(0.3)	
	자연 친화시도	자연보여주기 3(0.8) 자연소리듣기 2(0.5)	
	장작활동	십자수, 손뜨개 27(7.0)	
	아기 쓰다듬기	아기 쓰다듬기 55(14.2)	
	기도	기도, 성경읽기 9(2.3)	
	강좌 참여활동	출산준비교실 12(3.1)	
	기록으로 남기기	일기쓰기 7(1.8)	
	절제, 자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안보기 1(0.3) 해로운 음식 안먹기 2(0.5)	
	계획 중이거나 위하는 태교 (복수응답; N=386)	책 읽어주기	65(16.8)
		이야기하기	60(15.5)
		아기에게 편지 써서 읽기	24(6.2)
음악 듣기		63(16.3)	
좋은 그림보기		38(7.8)	
아기모습 상상하기		44(11.4)	
아기 쓰다듬기		55(14.2)	
태아위치 확인하기		18(4.7)	
올동적 운동하기	19(4.9)		

4.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의 구성요인

임부의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을 측정하고자 태교 및 모-태아상호작용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문항을 작성하고 수집된 자료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Nunnally, 1994)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은 임신, 태교실천, 영아, 태아, 태몽 그리고 모-태아상호작용행동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면제한으로 인하여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도구와 도구개발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반간

(표 5) 임부의 특성에 따른 태고관점 모-태이성호작용 신념의 비교

(N = 186)

임부의 특성	구분	N	총경		임신		태몽		태아		태고관점		임아응답		F/I	F/I	
			mean±SD	F/I	mean±SD	F/I	mean±SD	F/I	mean±SD	F/I	mean±SD	F/I	mean±SD	F/I			
부인의 연령	29세 이하	16(8.6)	5.0±3.1	5.45±.83	4.29±1.25	5.63±1.23	4.88±.79	4.88±.79	4.88±.79	4.88±.79	4.88±.79	4.88±.79	4.88±.79	4.88±.79	3.14±.55		
	30-39세	163(87.6)	5.39±.95	5.67±.79	4.27±.82	5.59±1.10	4.95±.85	5.02±.82	4.95±.85	5.02±.82	4.95±.85	5.02±.82	4.95±.85	5.02±.82	5.05±.75	362	
	40세 이상	7(3.8)	4.93±.34	5.06±.41	3.99±.40	5.76±.69	5.14±.36	5.14±.36	5.14±.36	5.14±.36	5.14±.36	5.14±.36	5.14±.36	5.14±.36	5.21±.47		
임부의 직업	29세 이하	48(22.0)	5.01±.57	5.56±.93	4.47±1.08	5.50±.98	4.8±.78	4.8±.78	4.8±.78	4.8±.78	4.8±.78	4.8±.78	4.8±.78	4.8±.78	4.91±.67		
	30-39세	142(76.4)	5.10±.54	5.66±.75	4.21±.72	5.66±1.14	3.48±.57	5.07±.83	3.48±.57	5.07±.83	3.48±.57	5.07±.83	3.48±.57	5.07±.83	5.09±.74	1323	
남편의 학력	40세 이상	3(1.6)	4.76±.17	5.03±.40	4.00±.35	5.33±.38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67±.14			
	고졸이하	47(25.4)	4.87±.45	5.51±.79	4.27±.86	5.16±1.16	3.30**	4.76±.76	3.30**	4.76±.76	3.30**	4.76±.76	3.30**	4.76±.76	4.83±.56	3,541*	
남편의 직업	대졸이상	139(74.7)	5.17±.54	5.71±.77	4.25±.80	5.71±1.04	3.10±.82	5.10±.82	3.10±.82	5.10±.82	3.10±.82	5.10±.82	3.10±.82	5.10±.82	5.12±.76		
	고졸이하	47(25.4)	4.98±.54	5.51±.82	4.21±.85	5.46±1.06	3.60±.82	4.93±.82	3.60±.82	4.93±.82	3.60±.82	4.93±.82	3.60±.82	4.93±.82	4.93±.68	2,011*	
남편의 직업	대졸이상	99(53.2)	5.17±.53	5.71±.77	4.25±.79	5.71±1.12	3.36±.80	5.16±.80	3.36±.80	5.16±.80	3.36±.80	5.16±.80	3.36±.80	5.16±.80	5.14±.75		
	고졸이하	47(25.4)	5.09±.54	5.63±.80	4.23±.82	5.57±1.10	3.50±.82	5.04±.82	3.50±.82	5.04±.82	3.50±.82	5.04±.82	3.50±.82	5.04±.82	5.06±.72	866	
임부의 직업	무	15(8.1)	5.03±.52	5.64±.78	3.98±.78	5.91±1.00	3.14±.74	4.76±.74	3.14±.74	4.76±.74	3.14±.74	4.76±.74	3.14±.74	4.76±.74	4.88±.66		
	유	40(21.5)	5.14±.50	5.73±.81	4.36±.89	5.73±1.29	3.88±.83	4.88±.83	3.88±.83	4.88±.83	3.88±.83	4.88±.83	3.88±.83	4.88±.83	5.04±.72	1,054	
종교	불교	32(17.2)	5.19±.57	5.58±.71	4.22±.88	6.00±.96	5.06±.87	5.06±.87	5.06±.87	5.06±.87	5.06±.87	5.06±.87	5.06±.87	5.06±.87	5.22±.68		
	기독교	56(30.1)	5.05±.51	5.67±.82	4.15±.88	5.54±1.08	4.95±.84	4.95±.84	4.95±.84	4.95±.84	4.95±.84	4.95±.84	4.95±.84	4.95±.84	5.09±.68		
자녀수	원주교	16(8.6)	5.25±.60	5.83±.70	4.27±.64	5.60±1.18	2.011	5.38±.82	2.011	5.38±.82	2.011	5.38±.82	2.011	5.38±.82	5.22±.95	3,003*	
	무교	78(41.9)	5.00±.54	5.58±.85	4.34±.79	5.44±1.12	4.97±.78	4.97±.78	4.97±.78	4.97±.78	4.97±.78	4.97±.78	4.97±.78	4.97±.78	4.87±.70		
가족형태	기타	4(2.2)	5.45±.27	5.50±.33	4.25±.42	6.33±.94	5.00±.67	5.00±.67	5.00±.67	5.00±.67	5.00±.67	5.00±.67	5.00±.67	5.75±.50			
	없음	131(70.4)	5.15±.53	5.79±.76	4.23±.88	5.60±1.05	5.09±.81	5.09±.81	5.09±.81	5.09±.81	5.09±.81	5.09±.81	5.09±.81	5.09±.81	5.11±.74	485	
가족형태	1명이상	55(29.6)	4.92±.53	5.23±.73	4.67**	5.40±1.20	4.82±.82	4.82±.82	4.82±.82	4.82±.82	4.82±.82	4.82±.82	4.82±.82	4.89±.57			
	허가족	159(85.5)	5.09±.54	5.63±.79	4.27±.79	5.60±1.04	5.01±.84	5.01±.84	5.01±.84	5.01±.84	5.01±.84	5.01±.84	5.01±.84	5.06±.72			
가족형태	시부모동거	23(12.3)	5.03±.52	5.65±.77	4.19±.99	5.54±1.45	3.74	5.03±.68	3.74	5.03±.68	3.74	5.03±.68	3.74	4.98±.79	226		
	친정부모동거	2(1.1)	5.24±1.28	5.60±1.98	4.00±.94	5.67±1.89	5.17±.71	5.17±.71	5.17±.71	5.17±.71	5.17±.71	5.17±.71	5.17±.71	4.88±.53			
가족형태	기타	2(1.1)	4.88±.02	5.20±.28	3.83±1.18	6.50±.24	5.17±.24	5.17±.24	5.17±.24	5.17±.24	5.17±.24	5.17±.24	5.17±.24	4.75±.71			

(N = 186)

〈표 5〉 임부의 특성에 따른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 및 각 구성요인과의 비교(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N	총점		임신		태몽		태아		태교상친		영어능력		모-태아 상호작용행동	
			mean±SD	F/A	mean±SD	F/A	mean±SD	F/A	mean±SD	F/A	mean±SD	F/A	mean±SD	F/A	mean±SD	F/A
가족수명 (만월)	100-150미만	22(11.8)	5.00±.55		5.36±.74		4.38±.89		5.61±1.23		4.73±.89		4.77±.86		5.05±.73	
	150-200미만	56(30.1)	5.02±.55	939	5.51±.79	1.980	4.30±.85	700	5.61±1.02	374	4.46±.78	1.441	4.79±.87	.491	5.00±.71	262
	200-250미만	52(28.0)	5.08±.50		5.59±.85		4.20±.86		5.49±1.02		5.12±.68		4.96±.77		5.02±.50	
	250이상	56(30.1)	5.17±.57		5.78±.75		4.20±.89		5.68±1.21		5.08±.92		4.88±.80		5.11±.58	
수원형태	모유	157(84.4)	5.11±.54		5.65±.77		4.28±.79		5.64±1.09		5.02±.78		4.86±.80		5.07±.73	
	분유	11(5.9)	4.87±.66	1.208	3.67±.84	5.96	4.18±1.13	4.05	4.97±1.00	1.963	4.91±1.14	1.03	4.88±1.27	.032	4.73±.79	1.154
	혼합	18(9.7)	5.01±.52		5.40±.86		4.09±.76		5.61±.93		5.00±.95		4.91±.65		5.01±.67	
질문상태	기준	186(100)														
결혼기간	1년미만	48(25.8)	5.07±.54		5.66±.72		4.50±.88		5.44±1.08		4.97±.80		4.81±.73		5.00±.74	
	1년-3년미만	66(35.5)	5.14±.55	619	5.73±.78	1.441	4.14±.87	2.891	5.67±.95	774	5.18±.86	2.153	4.80±.78	640	5.13±.73	780
	3년 이상	72(38.7)	5.04±.54		5.51±.84		4.20±.68		5.64±1.23		4.90±.77		4.95±.90		4.99±.72	
	12주 이하	2(1.1)	5.02±.37		5.10±.14		4.67±.47		5.50±.71		4.67±.47		5.50±.24		4.75±.10	
임신주수	13-27주	37(19.9)	5.16±.58	521	5.89±.74	2.979	4.20±.70	3.33	5.31±1.28	1.701	5.29±.67	2.777	5.03±.86	1.635	5.07±.65	708
	28주 이상	147(79.0)	5.06±.53		5.57±.80		4.20±.85		5.68±1.04		4.95±.84		4.81±.80		5.04±.20	
	1년미만	11(6.0)	5.03±.55		5.33±.74		4.27±.83		5.54±1.15		4.96±.82		4.80±.81		5.02±.73	
	1년-3년미만	51(27.4)	5.13±.51	1.403	5.77±.87	2.050	4.34±.81	1.669	5.61±1.04	983	5.05±.85	920	4.92±.81	1.199	5.01±.85	906
임신배수	3-4이상	22(11.8)	5.20±.54		5.78±.83		3.97±.72		5.89±1.13		5.21±.73		5.08±.84		5.24±.86	
	1배	123(66.1)	5.11±.54		5.76±.78		4.30±.85		5.49±1.08		5.10±.81		4.82±.76		5.07±.75	684
	2배이상	63(33.9)	5.03±.56	915	5.37±.77	3.178*	4.16±.74	915	5.81±1.11	-1.876	4.85±.81	1.994	4.94±.92	-933	4.99±.68	
유산·조산 경험	유	51(27.4)	5.21±.51	2.010*	5.83±.69	2.139*	4.40±.72	1.470	5.73±1.09	957	5.05±.89	322	4.98±.84	1.200	5.13±.74	975
	무	135(72.6)	5.03±.56		5.55±.82		4.20±.84		5.56±1.10		5.01±.82		4.82±.81		5.01±.72	

될 예정임).

5. 임부의 특성에 따른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신념의 비교

임부의 특성에 따라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과 6개 구성요인으로서 임신, 태교실천, 영아, 태아, 태몽 그리고 모-태아상호작용행동 신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태몽에 대한 신념을 제외한 임신, 태아, 모-태아상호작용행동, 영아 그리고 태교실천의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의 구성요인은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남편의 학력에 따라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의 구성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의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부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녀가 없는 초산인 경우 임신의 신념과 태교실천 구성요인이 경산인 임부보다 높았다. 또한 임신회수가 2회 이상일 때 그리고 유, 조산 경험이 없을 때 보다 임신회수 1회의 초임부나 유, 조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임신의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부의 특성으로서 연령, 직업, 종교, 가족형태, 가족의 수입, 계획하는 수유형태, 임신주수 등에 따른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과 임신, 태몽, 태아, 영아, 태교실천 및 모-태아상호작용행동의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의 구성요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임부가 태아를 한 인격체로 간주하여 태교를 시행하였던 국내의 전통 문화적 관습들은 모-태아

상호작용의 엄격한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 그리고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임부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임신, 태몽과 태아에 대한 임부의 지각 및 태교관행

임부의 임신에 대한 지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임부가 임신을 의도했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거나 행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에 비해, 오히려 별 느낌이 없거나 혹은 당황스럽거나 걱정스러웠다고 응답한 임부가 상당수 있어 임신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임신을 통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모성역할을 구성하는 자신, 그리고 그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을 여성으로서 또한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재정의하게 되는 위기와 동기화의 심리적 과정을 수반한다(Zabielski, 1994).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성취하고 자신의 여타 역할에 모성역할을 확고하게 포함시켜 그 역할에 편안해지는 복합적인 인지-정의적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모성역할(Mercer, 1985)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거쳐 출산 후까지 지속된다(Rubin, 1977). Rubin(1967)에 의하면 모성역할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Mercer(1981)는 그 역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임신에 대한 임부의 반응은 그 동안 국내외 몇 개 연구(오현이, 2001;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한경자, 1997)에서 밝혀 온 바와 같이 아직 모성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모성정체성과 자신감부족과 관련된 모성정체성 확립, 모

성역할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노영주(1998)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점차 여성이 자기성찰 노력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른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일부지역 일부의 불안과 불안요인에 관한 연구(정인숙, 김기순, 류소연, 나백주, 2002)에서 직업이 없는 임부의 불안정도가 직업이 있는 임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성이 단지 모성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녀건강을 위한 모성으로서의 역할획득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가의 중재노력으로 출산 후의 부모역할 교육에 앞서 임신의 진행 과정 동안 초기에 임부의 임신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체계화시킴으로서 모성역할의 동기와 모성역할 자신감 획득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초음파를 통하여 태아를 확인했고 초음파를 통한 태아확인 시 기분에 대한 서술적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89.9%) 혹은 부정적(1.5%) 측면을 포함하는 느낌(91.4%)이 전체 반응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0%미만의 매우 적은 범위가 책임감, 여성정체성 자각, 소망, 기다림, 그리고 긍정 혹은 부정적 측면의 태아에 대한 평가적 인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아를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 진단적 목적뿐만 아니라 임부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 임부와 태아 애착을 증진시키는 매체가 된다는 이지영 등(2002)의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태몽에 관한 임부의 지각에 대해서는 임부의 상당수(82.8%)가 태몽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태몽은 태교와 함께 임신 중 임부의 문화적 신념으로서 변함없이 상통되는 국내의 독특한 문화적 관습

및 관행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홍순례(1995)는 태몽, 태몽에 관한 산속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남아선호사상에 근간을 둔 우리는 남아의 출산에 관심을 갖고 태아의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의 하나로 태몽을 중요시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체임부의 반 이상(52.2%) 임부들이 태몽이 예시한다고 믿는 내용도 아들이나 딸로 출생할 아기의 성별에 대한 예측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경자(1987)의 연구에서는 21명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다고 하였고 3명은 꿈을 꾸고 싶었으나 없었으며 1명은 첫 아기 때에 둘째 아기 꿈까지 동시에 꾸었다고 하여, 25명의 연구대상 어머니 모두가 태몽을 믿고 있었고 태몽은 어머니에게 예시와 낙관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약 16.1%의 임부는 태몽은 단지 일반적인 꿈이고 예시기능은 없다고 지각하고 있어 현대 의학의 보급과 사회의 식 구조의 변화와 함께 일반 꿈과 분별하여 임신을 예시하는 전통적 신념인(한 건덕, 1993; 김성배, 2001) 태몽의 상징적, 문화적 신념은 점차 약화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어머니 자신에 대한 태몽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와 어머니 자신에 대한 태몽의 예시가 어머니 자신의 현재까지와 미래에 얼마나 맞는지 믿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보다는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경우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70%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부의 태아에 대한 태몽 지각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천하고 있는 태교나 계획 중인 태교는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주된 것은 음악 감상이나 노래하기, 태아 쓰다듬기, 책 읽기, 태담으로 나타났고 운동, 음식섭취나 심신의 안정과 관련된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현옥(1997)은 오늘날 임신부부들이 태교 실천을 위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음악놀기와 책읽기로 이것만이 대교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며, 음식 섭취 양상은 과거에 비해 좀 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영양섭취를 하려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연정은(2001)의 연구에서는 음식섭취나 심신관리보다는 태아와의 상호작용 행위를 태교실천으로 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부들은 태어날 아기의 기질에 대하여 대체로 적응을 잘하고 잘 달래질 것이라고 하여 태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몽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로 태동과 부모자신의 성격을 통해 아기의 성격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기질이 어려운 것으로 지각될수록 어머니로서 부모의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Gross 등(1994)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임부가 자신의 아기 기질에 대한 지각을 출산 후에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프로그램에 임부의 수면-활동리듬을 포함하는 자기조절훈련을 중재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임부의 특성

임부의 특성에 따라 모-태아 상호작용신념과 각 구성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과 구성요인으로서 임신, 태교실천, 영아, 태아, 태몽, 모-태아상호작용행동은 남편의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태교가 태아에게 주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김경례(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임부의 경우도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은 경우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 총점과 구성요

인 모-태아 상호작용행동의 신념이 학력이 낮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태교에 관한 인식과 실천정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공상량, 1992; 조연희, 1992)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 경우 학교나 인터넷, 그 외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 보여지며 남편과의 상호작용이 임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태교관점의 모-태아 상호작용 프로그램에는 임부 혹은 그들 남편의 학력이 낮은 그룹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임신, 태교실천, 영아, 태아, 모-태아 상호작용행동의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 각 구성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신념으로 유도할 교육 및 상담지도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자녀가 없는 초산인 경우 임신의 신념이 경산인 임부보다 높고 임신회수가 1회 일 때 그리고 유, 조산 경험이 있을 때에는 임신회수 2회 이상의 경산부나 유, 조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보다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행동신념과 구성요인, 임신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은숙(2000)의 연구결과와 같이 아기를 처음 갖는 임부의 경우 태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주변으로부터의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부의 임신, 태몽 및 태아에 관한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이 어떠한지 밝히고, 임부의 특성에 따라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산부인과 전문병원 2곳과 보건소

1곳에 산전관리를 받기위해 내원한 임부 186명으로 내상자의 기초자료 기록지, 태교관련 지각과 태교관행에 관한 설문지 그리고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신념의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과 SPSS WIN 10.0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신에 대한 임부의 지각은 기쁘거나 행복했다는 반응보다는 별 느낌이 없었다거나 당황스러웠다는 부정적인 경향의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53.4%). 대상자 모두가 초음파로 태아를 확인했으며 초음파를 통한 태아 확인 시 기분은 대다수(89.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임부의 82.8%에서 태몽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약 80% 정도의 임부는 태몽의 예시 기능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의 임부는 태아의 성별 예시 기능을 믿고 있었다.
2. 임부의 태교관행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악 감상이나 독서 그리고 태아 쓰다듬기 행동을 많이 응답하여 음식섭취나 심신의 안정을 위한 행동보다 태아와의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신념은 요인 분석한 결과 임신, 태교실천, 영아, 태아, 태몽, 과 모-태아상호작용에 관한 신념으로서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값이 .82였다.
4. 남편의 학력이 높은 임부에게서 남편의 학력이 낮은 임부에게서 보다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신념과 구성요인으로서 임신, 태교실천, 영아, 태아 및 모-태아상호작용행동 각각의 신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부의 학력이 높은 경우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신념과 한 개 구성요인인 모-태아상호작용행동의 신념이 학력이 낮은 경우

에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처음 임신인 경우 그리고 유산이나 조산 경험이 있는 임부에게서 임신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신념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대상자인 임부가 임신을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임신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모성정체성 내지 모성역할의 획득결여 혹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여성의 참여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난 자녀출산 기피의 간접적인 심리현상으로 보여 진다. 임부의 태교관행은 전통적인 신념의 약화와 함께 태아와의 상호교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작용 프로그램 개발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부들에게 임신의 초기부터 모성정체성 내지 모성역할의 획득을 촉진시키고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모성역할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임부와 배우자의 특성에 근거한 태교관점 모-태아상호작용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고효정 (1996)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긴상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공상량 (1992).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태교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본권 (1999). 한국어머니의 태몽과 태교(일반아동 어머니와 장애아동 어머니의 비교). 인문과학논집, 8(1), 215-235.
- 김경례 (1989). 태교 및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도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금중, 유은광 (1999). 치료적 터치를 병용한 듀라(Doula)의 역할이 분만 제 요인에 미치는 영

- 향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2), 224-235.
- 김성배 (2001) 한국의 민속, 집문당, 145-146
- 김은숙 (2000). 임부의 태교실천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옥 (1991). 임신부의 태아애착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옥 (1997). 태교실천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원, 황문숙, 홍경자 (1998) 산욕 초기 초산모의 모성 정체성과 영아돌보기 활동 자신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65-77
- 노영주 (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6). 출산교실에 참여한 임부의 교육평가 및 요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108-117.
- 연정은 (2001). 임신부부간의 태교인식과 실천행위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1990).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대학교 출판부, 128-131.
- 이기영 (1992). 기혼여성의 태교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동민 (1984). 태중교육. 흐름사, 85-106.
- 이은옥, 인난영, 박현애 (1998). 간호의료 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이지영, 조정연, 장순복, 박주현, 이영호 (2002). 초음파 영상을 통한 태아의 모습 제공 여부가 임부의 태아애착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3), 335-344.
- 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 (1996). 한국 임부의 태교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6(20), 345-358.
- 조연희 (1992). 우리나라 임부들의 태교에 대한 인식 및 실천도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승, 한경혜, 강혜규, 정경희, 이해경 (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현섭, 김현옥, 배희옥 (1994). 가족역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5(1), 84-96.
- 한건덕 (1993). 태몽의 모든 것, 기린원, 52.
- 한경자 (1997). 영아어머니의 자녀 돌봄의 부담감과 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228-242.
- 한경자 (1987). 한국인 영아의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행동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순례 (1995). 산속에 나타난 태점·태몽연구, 한국민속학, 27집, 524-540.
- Davis, M. S., Akridge, K. M. (1987). The effect of promoting intrauterine attachment in primiparas on postdelivery attachment. JOGNN, November/December, 430-437.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Leininger, M. M. (1991). Culture Care Diversity & Universality: A Theory of Nursing, NIN Press, New York, Pub. No. 15-2402.
- Mercer, R. (1985)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73-77.
- Nunnally (1994). Psychometric Theory, Jum C. Nunnally, I.M. Bernstein 3rd. Ed. McGraw-Hill Inc.
- Rubin, R. (1967) Attainment of maternal role:

- Part 1. Processes, Nursing Research, 16, 237-245.
- Rubin, R. (1977) Binding in the postpartum,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6, 2, 67-75.
- Shore, R. (1997)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Zabielski, M. T. (1994). Recognition of Maternal Identity in preterm and Fullterm Mother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1), 1-36.

ABSTRACT

Key Words : Taegyo, Taemong, Mother-Fetus Interaction

Mot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Taegyo, Belief toward Korean Mother-Fetus Interaction*

Han, Kyung-Ja** · Kim, Jeong-Soo***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ot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Taegyo. In addition, belief factors toward Taegyo oriented Korean mother-fetus interaction are identified in order to obtain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aegyo oriented program enhancing mother-fetus interaction. **Method:** The sample consisted to 186 pregnant women who visited public health center or hospital for prenatal care. Self-reporting questionnaire devised by investigator was us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program and contents analysis was used. **Result:** Although mothers intended to a pregnancy, many of them were perceived negatively toward pregnancy. The study revealed that most of pregnant women continued cultural practices related to Taegyo, they focused on mother-fetus interaction

behavior-such as listen to the music, reading a book, talk to fetus, stroke the fetus- with being altered traditional beliefs toward Taegyo or Taemong. Most of pregnant women had Taemong and believed a it's predictive functions. Beliefs toward mother-fetus interaction were classified to 6 factors, pregnancy, Taemong, fetus, practice behavior, infant's abilities and mother-fetus interaction behavior. The scores of belief toward mother-fetus interaction and each factors of pregnancy, fetus, practice behavior, infant's ab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depending upon husbands education. Also pregnancy factor in belief toward mother-fetus inter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number of children, child birth, experience of abortion, premature birth. **Conclus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Grant(KOSEF R04-2003-000-10028-0)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Developing Taegyo oriented program enhancing the mother-fetus interaction need to include the elements of being facilitated maternal identity formation and maternal confidence for the

pregnant women. In addition, it should be developed the program concern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gnant women.